

# 서울~지리산 성삼재 버스노선 신설 주민 집단 반발

구례 시민·사회단체 대책위  
노선 신설 반대 결의문 채택  
운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조치 촉구

국토교통부의 서울-지리산 성삼재 고속버스 정기 노선 신설(광주일보 7월 14일자 7면)에 대해 구례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민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6일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구례군청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국토부의 '서울-성삼재 고속버스 노선 인가'에 대해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민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 국민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책위원장은 김영의 전 구례군의원이 맡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이해 당사자인 구례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국토부의 버스 노선 인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구례군에 국토부를 상대로 버스운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요구했다.

서울-성삼재 노선 신설에 대해 전남도는 2차례 반대 의견을 냈고, 구례군은 아예 통보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토부는 인가 결정을 했다. 결국 관할 지역인 구례군과 전남도는 반대했는데 국토부가 경남도와 경남지역 버스운송업체의 사업계획을 승인해준 것이다.

구례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구례읍에서 성삼재까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고 구례읍 음식업·숙박



**국토교통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서울-성삼재 시외버스 인가를 철회하라!!**

구례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구례군청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국토부의 '서울-성삼재 고속버스 노선 인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구례군 제공>

업이 많은데 고속버스 노선 신설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열악한 산악도로로 인해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대형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리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실정인데도 서울에서 지리산까지 고속버스를 추가 운행하는 것은 환경파괴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매년 50만대의 차량이 성삼재 도로를 따라 올라가며 매년, 외래종 식물 번식 등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환경단체 회원은 "버스 정기 노선을 만드는 것은 지리산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순호 구례군수는 "50년 전 구례군민이 심시일만 성금을 모아 지리산을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으로 만들었다"며 "지리산의 자연을 사랑

하는 군민의 마음을 정부가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과 건의서를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전남도, 경남도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구례군 소상공인연합회도 성삼재 버스 노선 승인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례군의회도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성삼재 버스 노선 인가에 대해 논의한 뒤 철회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고창 민간조직 구성·출범  
전문컨설팅 등 20일 본격 업무

고창군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공동체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조직인 사회적경제팀을 구성·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에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인 '사회적경제팀'을 꾸려 오는 20일부터 공동체사업과 사회적경제사업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경제팀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 조정, 지역 상황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사회적경제 인성개선을 위한 주민교육과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사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월곡뉴타운커뮤니티센터 1층에 있던 공동체지원센터 사무실을 고창농산물유통센터 2층으로 확장 이전했다.

고창군은 전북도 주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구축을 위한 공모' 사업 선정 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의 필요와 수요가 결합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때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해 고창형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국내 최고 역사 '남원 춘향제' 온라인 축제로

9월 10~13일 나흘간 개최  
춘향제향 등 무관객 진행  
유튜브채널·방송 통해 중계

올해로 제90회를 맞는 남원 춘향제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열린다.

남원시는 올해 춘향제를 온라인 축제로 전환해 오는 9월 10~13일 나흘간 개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춘향제는 해마다 4~5월에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하반기로 연기했다.

남원시는 코로나19가 당분간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검토했으나 국내 예술축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축제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축제로 명맥을 잇기로 했다.

축제의 핵심인 춘향제향과 춘향선발대회 등은 무관객으로 진행되는 대신 춘향제 유튜브채널 '남원외곽'이나 방송을 통해 중계한다.



제90회를 맞는 춘향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오는 9월 10~13일 나흘간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제89회 춘향제 모습. <남원시 제공>

춘향제의 대표 브랜드 공연 '춘향은 살아있다' 등은 추첨을 통해 최소한의 관객만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춘향제 추억 공모전', '춘향제 로고송 이벤트'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이벤트도 마련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시,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지역상권 활력 찾는다

정읍시가 막걸리를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에 도전한다.

정읍시는 지역 고유의 막걸리를 활용해 잠재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에서는 신대인막걸리와 북면생막걸리, 입암막걸리, 정우생막걸리, 송명생막걸리, 웅동막걸리, 구절초생막걸리, 산외막걸리 등이 생산되고 있다.

이 중 송명생막걸리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만찬에서 등장하며 유명세를 타고 있다.

정읍시는 이 같은 지역 막걸리를 특화하고 관련 거리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읍시가 원도심에 막걸리 특화거리를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지난 14일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막걸리 특화거리가 조성되면 우리 지역 막걸리를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쌀 소비를 확대시키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그린알로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